

## 『율리시스』 독회: 「에우마이오스」 & 「이타카」

이 영 심

### <일러두기>

- \* <발제>는 독회진행자가 보내온 자료에 근거하고, <토론 및 의견>은 독회에 참석한 회원이 독회 중 개진한 견해를 독회 후에 정리한 것이다.
- \* *Ulysses*는 Gabler 판본에 의거하여 장과 행을 표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U*라고 표시한다.
- \* 독회에서 거론이 되었더라도 Gifford의 주석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록할 경우 (G)로 표시한다.
- \* 사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제목이 붙어있고 비중이 있으며 논점이 명확한 해제의 글은 <토막춘평>으로 분류한다.

## 제 88회 『율리시스』 독회

## &lt;모임&gt;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802호

일시: 2011. 7. 30.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박진훈

범위: *Ulysses*, Chapter 16 “Eumaeus,” (Line 1016~1296)

참석자: 이종일, 남기현, 윤희환, 박진훈, 손승희, 길혜령, 이영심, 김경숙, 양진이  
(세종대 대학원생), Justin(Harvard 대학원생)

## &lt;발제&gt;

\* Line 1016 ~1296까지의 대략적인 내용 요약

Ireland 농민에 대한 keeper와 Sailor의 애국적 논쟁, Phoenix Park murder 때 keeper의 역할, Bloom이 Citizen을 제압한 이야기, Jew에 대한 Bloom의 가치관, Bloom의 종교·경제관, 경마(Throwaway)이야기

(L 1016 ~) Keeper의 애국적 발언에 반기를 들며 끼어든 Old veteran(老兵, ㉓)은 “영국 육군의 가장 훌륭한 부대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 이에 cabby like Campbell(캠벨처럼 생긴 馬夫)이 “The Irish”라고 답하자 old tarpaulin(老水夫, ㉔)은 가장 훌륭한 해군제독들과 육군대장들이 “아일랜드의 가톨릭 농민” 출신이라고 대꾸한다: “[T]he Irish catholic peasant. He’s the backbone of our empire. You know Jem Mulins?”

그러나 Irishmen의 탁월한 재능을 확신하는 Sailor의 말에 대해 the keeper는 empire(제국)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며, 제국을 섬기는 Irishman은 자기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되받아친다. 그러자 Keeper와 Sailor 간의 언쟁이 한층 격렬해진다. 그 둘은 listeners(청취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청취자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던 Bloom은 Keeper의 주장들 - “이미 영국은 쓰러지

고 있으며 영국의 몰락은 아일랜드 때문이다.” “일억 년이 지나면 the coal seam of the sister island(자매도인 영국의 석탄층)가 탕진되어 버릴 것이다.”-을 quixotic idea(‘돈키호테 식 아이디어’)와 같다고 느낄 뿐이다. 영국인의 힘과 감정을 과소평가하기를 거절하는 Bloom은 아일랜드와 영국 두 나라가 당분간은 try to make the most of both countries(상호호혜 정신을 존중하려고 애쓰는 것)가 서로 현명한 일이라 생각한다. 사실상, Irish soldiers는 England를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자주 싸웠다. Bloom은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서로 원수가 되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한다.

(L 1043~) 잇따라 Bloom은 Phoenix Park murder 사건 당시 마차를 몰았던 the invincible(무적혁명단원)인 Fitzharris의 역할에 대해 명상한다. Bloom은 Fitzharris가 Cabman’s Shelter의 lessee(임차인)이든 keeper이든 당시 살인사건과 연관된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살인에 대해 love vendettas of the south(‘남국의 사랑의 복수’)를 떠올린 Bloom은 Fitzharris는 그런 사랑의 복수도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Fitzharris가 Phoenix Park murder 당시 perpetrators(하수인들)를 위해 car를 몰았다-실제로는 decoy cab을 몰았다(U 7.640)-고 억측하면서, 어떤 법의 권위인 재판이 Fitzharris를 구해주었다고 생각한다.

(L 1078~) 이러한 폭력의 화제와 관련하여 상념에 빠져 있던 Bloom은 Stephen에게 얼마 전에 바니 키어넌 주점(Barney Kiernan’s)에서, keeper나 sailor 처럼 lingo(황설수설)하는 offender(난폭자) ‘Citizen’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 다물게 했는지 말해준다. Bloom은 그 광란의 민족주의자 Citizen과의 논쟁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Citizen이 자기에게 화를 내며 유대인이라고 조롱하자 점잖게 “그리스도 자신도 유대인이었음”을 재치 있게 말함으로써 Citizen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h]is God, I mean, was a jew too and all his family like me ...”(L 1084-85) 이와 같이 Bloom은 “eventempered person”(냉정한 기질을 지닌 사람)이다.

(L 1094~) Bloom은, 마치 Odysseus가 재회한 Telemachus(텔레마코스) 왕자에게 타이르듯, timorous dark pride(겁 많고 침울한 자존심)를 지닌 Stephen에게 ‘질문의 양면’을 보라고 주장한다: “You must look at both sides of the question.” 이어서 Bloom은 각 나라의 government(정부)를 인정하면서 natural superiority(상호

우월성)와 natural equality(상호 평등성)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피력한다. 그러면서 violence and intolerance(폭력과 편협성)에 대해서는 분개한다. 또한 근처에 사는 영국인이 another vernacular(Gaelic)를 쓰는 people(Irishmen)을 증오하는 것은 absurdity하다고 비판한다.

Stephen은 Bloom의 말에 동조하면서 bloody bridge battle[Barrack Bridge에서의 riot in 1904]과 seven minutes' war[Ormond Bridge에서의 faction fights in the 18 century]에 대해 비난한다. 아울러 전 세계에 만연한 wretched quarrels(고약한 싸움들)는 결국 honor and flag(명예나 국기)때문이 아니라 money question(금전문제), greed and jealousy(탐욕과 질투) 때문이다. 이런 싸움은 상호 평등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불화만 야기한다.

(L 1119~) Bloom은 Stephen의 귀에 대고 Jews(유대인)를 두둔하면서 그들이 부당하게 ruining(파괴)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속삭인다. 그의 이야기는 Jews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박해로 이어진다. 역사적으로 the jews를 박해한(hounded out) Spain은 패망하고, 유대인을 받아들인 England는 번영했다는 논리를 펼친다. 그는 유대인들이야말로 proper spirit(타당한 정신)을 지니고 있고, practical(실질적인) 사람들이라고 역설한다(L 1124-25). 이어서 Bloom은 Spain과 Turks(스페인과 터키인)을 America(미국)와 비교하면서 가톨릭의 타락한 종교적 경제관을 밝힌다. 종교, 특히 로마 가톨릭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heaven(천국)으로 부추기면서, on false pretences(헛잡으로) 신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juggle(사기)라고 몰아 부친다. Bloom은 수도승들의 금전 문제에 대한 탐욕은 극심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또 £300 per annum(연간 300프랑)이 있으면 안락하게 살면서 사람들과 friendlier intercourse(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provocative(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개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곳과 먹고 살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Where you can live well, the sense is, if you work"(L 1139-40). 마침내 Bloom은 모든 종교적 신조와 계급을 떠나 그들의 안전과 타당한 수입을 옹호하는 이른바 인류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신화를 옹호한다.

Bloom은 Stephen에게 비폭력, 선의, 관용, 상호 평등성 및 만인을 위한 부의 대등한 분배 등을 주장하고 있다. Bloom의 장광설을 듣고 있던 Stephen은 아침에 crabs about Ringsend(링센드 근처의 게들)를 생각한다. 그 crabs는 burrowing(굴을 파고)하고 home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도 없고(초등학교에서 사직을 함) 집도

없는 Stephen은 “Count me not,”(“저는 제외시켜 주세요” [L 1148])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예술가이며 이기주의자인 Stephen은 자신의 지역 사회를 위한 공헌의 중요성을 시인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Bloom은 Stephen에게 “... all must work, have to, together.”(“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같이”) 하면서 “Writing for the newspapers”(“신문에 기고하는 일”)이라도 하라고 강권한다. Bloom은 학자(Stephen, brain)나 peasant(농부, brawn) 모두 Ireland를 위해 각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조국 Ireland를 좋아하지 않는 Stephen은 화제를 바꾸자고 볼멘소리를 한다: “We can’t change the country. Let us change the subject”(L 1171).

(L 1172 ~) Bloom은 화제를 바꾸려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으나 여전히 Stephen의 말 중에서 “belongs to”(“속해 있다”)에 어떤 construction(해석)을 내려야 할 지 혼란스러워 한다. Bloom은 Stephen의 통명스런 발언이 fumes of his recent orgy (Stephen이 얼마 전 즐겼던 주연의 술기운)이나, homelife(가정생활)의 불균형과 타인과의 친교에 익숙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Stephen이 최근에 Paris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Stephen을 scrutinise한다. 이에 Bloom은 장래가 촉망되며 cultured fellows(교양 있는 청년들)의 예를 떠올리며, Stephen이 나타내는 분명한 기질적 이상성(理想性)에 대하여 우려를 드러낸다. 여기서 두 사람은 상호 의견의 불일치를 경험한다. Bloom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자신에게 있다고 느낀다: “[n]obody to blame but themselves.”(L 1184-85) 예를 들어 O’Callaghan(오켈러헌)의 경우가 그렇다. O’Callaghan은 respectably connected(가문이 좋은) 자이지만, mad vagaries(미친 기행들)를 일삼는 faddist(변덕쟁이)이다. 그는 술 취하면 a suit of brown paper(고동색 포장지로 만든 옷)을 걸치고 sport(해롱거리다)한다. Bloom은 이 예를 통해 Stephen에게 암묵적으로 개인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인성(personality)을 부지런히 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Bloom은 그가 귀 기울이지 않던 숫자(6, 16), Antonio, jockeys and esthetes(경마광과 심미주의자), 그리고 1870년 대에 사회 지도층 사이에 유행했던 tattoo(문신) 등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Bloom은 마음속으로 왕족의 부도덕성을 나타내는 the Cornwall case(콘웰 사건)을 반추해 본다. 그리고 distinctive underclothing(유별난 하의, 의복)을 남녀 간의 acts of impropriety(부정행위)를 위한 자극제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어

Bloom의 생각은 오늘날 특별히 가정적 배경도 없이 출세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탁월성으로 옮겨간다. 그들 중에는 순전히 natural genius( 타고난 재능)으로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자들도 있다.

(L 1216~) 여러 상념에 빠져 있던 Bloom은 그의 관심을 다시 Stephen에게 돌린다. 그는 the unlookedfor occasion(이 예기치 않은 기회)을 잘 이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며 또 의무라고 느낀다. 그가 Stephen에게 계속 관심을 쏟는 것은 그에게 이 젊은이가 food for reflection(사색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Intellectual stimulation, as such, was, he felt, from time to time a first-rate tonic for the mind.”(Bloom은 지적 자극이야말로 그 자체가 때때로 최고급의 정신적 강장제가 된다고 느꼈다) 아울러 the lives of the submerged tenth(1/10에 해당하는 최하층의 삶)을 a miniature cameo of the world(세계의 축소판 카메오(陽刻))로 보고 coalminers, divers, scavengers 등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신문 column에 기고한다면 제목을 *My Experience in a Cabman's Shelter*로 할까? 하고 생각해 본다.

Bloom이 이러한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 운 좋게 그의 팔꿈치 곁에 석간신문 *Telegraph* 《텔레그래프》가 놓여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Stephen이 한 말—“a country belonging to him”(L 1234)—과 Sailor에 관한 의문점들—the vessel came from Bridgewater and the postcard—을 생각하면서도, 그의 눈은 광고 난의 respective captions(각각의 표제들)를 훑어 나간다. 그 중에는 Ascot meeting, Victory of outsider *Throwaway*, New York disaster, Funeral of the late Mr Patrick Dignam 등의 기사도 있다.

(L 1246~) Bloom은 화제도 바꿀 겸, Hynes(하인즈) 기자가 쓴 Dignam의 장례식 기사를 읽는다. 이 기사는 *interment in Glasnevin*(글래스네빈에 매장된) Dignam을 추모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14명의 이름과 M'Intosh 그리고 기타 등등)의 명단을 싣고 있다. 그런데 장례식 참석자 명단 중에 자신의 이름이 ‘L. Boom’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고 Bloom은 매우 불쾌해 한다. 또한 신문의 기사 가운데 bitched type(오식(誤植) 활자)도 눈에 띈다. 분명히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은 *Stephen Dedalus B.A.*와 *CP M'Coy*가 실려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Stephen에게 알려주었으나 Stephen은 관심 없이 yawn(하품)만 한다.

Dignam의 장례식 기사에 관심 없는 Stephen은 Bloom에게 Deasey 교장의 글이 신문에 실렸는지 물어본다. 그는 Bloom이 foot and mouth (disease, 구제역)에 관한 Deasey의 글이 신문에 실렸다고 말하자 마음이 진정된다. Bloom은 Stephen의 이런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

상대방(Stephen)이 신문의 2면(Deasey의 글)을 읽고 있는 동안, Bloom은 3면의 the third event at Ascot(에스콧 경마의 세 번째 경기)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1위는 *Throwaway*호, 2위는 *Zinfandel*호, 3위는 bay filly *Sceptre*호 순이다. <쓰로어웨이>호에 건 경마광들은 20배의 배당을 받는 대성공을 거두었다(20 to 1 *Throwaway*(off)). Bloom은 halfbaked Lyons(푹내기 [Bantam] 라이언즈)가 경마에서 결정을 바꿔서 돈을 잃은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점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Guesswork it reduced itself to [fail] eventually”(L 1293-94).

### <Discussion>

1. Keeper와 Sailor의 Ireland/Irish에 대한 애국적 발언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2. Bloom이 Jew(유대인)를 좋게 평가하는 불변의 민족관과 그의 가변적인 종교관(여러 번 개종함) 사이의 차별성과 연관성은 무엇인가?
3. 이 곳에서 말하는 Bloom의 실제적 경제관·종교관은 주로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Stephen은 여전히 이상적인 경제관·종교관을 말하고 있다. 이 둘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또한 경제적, 종교적 관점에서 개인의 도덕성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가?
4. “The Gold Cup”에서 1등을 한 *Throwaway*호가 *Sceptre*호를 이긴 사건은 주로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논의되는데, 그밖에 논의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또한 *Zinfandel*호는 어떤 connotation을 갖고 있는가?

### <김경숙>

1171행의 “We can’t change the country. Let us change the subject”(나라를 바꿀 수는 없으니 주제라도 바꾸자)는 Stephen의 발언이 흥미롭다. 계속되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희화시킴으로써 민족과 인종이 갖는 결정론적 위엄을 탈신비화한다는 점에서 Stephen의 재치가 놀랍다. 또한 “주제”를

뜻하는 “subject”라는 단어가 “국민, 백성”이라는 의미 역시 지니고 있다. 위 1164행과 1165행의 “Ireland must be important because it belongs to me”에서 subject와 belong to의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Stephen의 재치가 더욱 돋보인다 할 수 있다.

### <양진이>

16장 L.L. 1015~1025 주요 사건은 ‘오두막집 주인장’과 ‘신분을 속인 노수부’의 언쟁이며, 전체 흐르는 작은 주제인 모티브는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다(look at both sides) 것으로 내용이 첫째 현재적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사건, 둘째 과거적 역사적 사건, 셋째 가족에 관한 개인적 문제가 여러 상징들로 간단 축약하여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제시한 스티븐의 미학이론의 원리를 사용해 유기체적으로 잘 엮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젊은 예술가의 초상』 5장의 학감과의 대화에서 미학적 논의의 어려운 점을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보면, 본 작품 전반적인 아쉬운 점은 미래적 용어를 다루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스티븐의 미학이론에 의하면 이 작품은 과거의 존속물이거나 현재의 세속적으로 잠들 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감이 있다.

이번 독회는 이종일 교수님의 까칠한 구문상의 주어 찾기가 주도를 이루어, 토론의 언쟁 열기가 대단 하였으며, 한 단어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언어의 유희로 전체 맥락적 의미가 커지는 묘미가 더 하였다. 작년 10월부터 조이스 학회나 율리시스 독회에 참석하여 지켜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아직 조이스의 문학에 아직 초보자인 자인 제가 선뜻 내뱉기엔 돈키호테적이긴 하지만 한마디 하자면,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나 『율리시스』(*Ulysses*), 그리고 『피네간즈 웨이크』(*Finnegans Wake*)의 한 문장이나 단락 속에 전혀 다른 소재가 있다는 이유로 작중인물이나 작가의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나 해체주의(deconstruction)기법만을 생각해서, 작가가 마음이 표현된 언어를 통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평범한 한 인물을 소재로 다룬 『율리시스』의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는, 좋은 영화 감독은 여배우의 보이지 않는 속옷(“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제작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까지도 철저히 의미를 부가하는 것처럼, 글자를 쓸 때 의미 없이 새기지 않았으므로 참다운 독자이나 학자가 되고자하는 우리들은 서로 다른

대상물이 한 번에 나오더라도 연결이 되는 숨은 상징적 의미(connecting link)를 찾아 해독해야 한다고 본다.

호머(Hommer)의 『오디세이아』(Odysseia)를 변안한 것을 분명히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라틴어가 아닌 작품의 제목을 영어식으로 『율리시스』라고 한 것은 학부시절 영미문학사 시간에 배운 펑귄출판사의 책 한 구절인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가 동시대(contemporary)를 정의하기를 “오래된 유명인 동상 옆에 있는 마시다 만 콜라 캔”이라고 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느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냉장고에서 꺼낸 “콜라”를 마시면서, 단순히 “차다”라고만 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시원하다”, “맥주 같다”, “더위를 잊었다”, “날 살렸네”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만 표현한다는 것이 불가하여 나온 대안책으로, 경험에 의한 동일한 감정을 주는 사물로 비유하여 표현하면 자신의 감정에 더욱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학이란 것이 단순한 수학적 논리가 아니라, 작가의 감정을 언어의 논리의 방식을 통해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율리시스』의 전반적으로 표현된 방법은 글로 된 사물과 사건들이 겉보기엔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그 연결 고리를 찾아보면 독자를 위하여 안내가 잘 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유기체적 형태로 주제를 향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날 수학을 전공한 여동생이 영문학을 전공한 저에게 한 말 중에 하나가 “언니는 뭐든지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다!”라고 했던 적이 있다. 자신이 글로 만든 세상인 책속에 의미 없이 하나를 새겨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작가는 없을 것이고, 의미가 없는 글이거나 단순한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잠시 흥행하여 금세 대중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드라마, 가수, 유행어 등과 같지 않겠는가?

## 제 89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802호

일시: 2011. 8. 27. (토) 오후 2:00-5:30

독회진행자: 박진훈

범위: *Ulysses*, Chapter 16 “Eumaeus,” (L 1216~1420)

참석자: 이종일, 남기현, 박진훈, 손승희, 이영심, 김경숙, 양진이(세종대 대학원생), Justin(Harvard 대학원생)

### <발제>

\* L 1216 ~ 1420의 대략적인 내용 요약

Bloom의 Stephen에 대한 관심, 신문 기고에 대한 상념, Dignam의 장례식 기사(오타), Deasey 교장의 신문기사, Ascot 경마-*Throwaway* 호, Parnell과 O'Shea의 스캔들, Spanish O'Shea

(L 1216~) 이어 블룸의 생각은 오늘날 특별히 가정적 배경도 없이 출세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탁월성으로 옮겨간다. 그들 중에는 순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사회의 최고 위치까지 오르는 자들도 허다하다. Bloom은 the unlookedfor occasion (이 예기치 않은 기회)을 잘 이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며 또 의무라고 느낀다. 그가 Stephen에게 계속 관심을 쏟는 것은 그에게 이 젊은이가 food for reflection(사색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Intellectual stimulation, as such, was, he felt, from time to time a firstrate tonic for the mind.”(Bloom은 지적 자극이야말로 그 자체가 때때로 최고급의 정신적 강장제가 된다고 느꼈다) 아울러 the lives of the submerged tenth(1/10에 해당하는 최하층의 삶)을 a miniature cameo of the world(세계의 축소판 카메오[陽刻])로 보고 coalminers, divers, scavengers 등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신문 column에 기고한다면 제목을 *My Experience in a Cabman's Shelter*로 할까? 하고 생각해 본다.

Bloom이 이러한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 그의 시선은 자신의 팔꿈치 곁에 놓인 당일의 석간 *Telegraph* 《텔레그래프》의 스포츠 호외판에 고정된다. 그는 계속해서 Stephen이 한 말—“a country belonging to him”(L 1234)—과, Sailor에 대한 의문점들—the vessel came from Bridgewater and the postcard—을 생각하면서, 그의 눈은 광고 난의 respective captions(각각의 표제들)를 훑어 나간다. 그

중에는 Ascot meeting, Victory of outsider *Throwaway*, New York disaster, Funeral of the late Mr Patrick Dignam 등의 기사도 있다.

(L 1246~) Bloom은 화제도 바꿀 겸, Hynes(하인즈) 기자가 쓴 Dignam의 장례식 기사를 읽는다. 이 기사는 *interment in Glasnevin*(글래스네빈에 매장된) Dignam을 추모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14명의 이름과 M'Intosh 그리고 기타 등등)의 명단을 싣고 있다. 그런데 장례식 참석자 명단 중에 자신의 이름이 'L. Boom'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고 Bloom은 매우 불쾌해 한다. 또한 신문의 기사 가운데 *bitched type*(오식(誤植) 활자)도 눈에 띈다. 분명히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은 *Stephen Dedalus B.A.*와 *CP M'Coy*가 실려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Stephen에게 알려주었으나 Stephen은 관심 없이 *yawn*(하품)만 한다.

Dignam의 장례식 기사에 관심 없는 Stephen은 Bloom에게 Deasey 교장의 글이 신문에 실렸는지 물어본다. 그는 Bloom이 *foot and mouth*(disease, 구제역)에 관한 Deasey의 글이 신문에 실렸다고 말하자 마음이 진정된다. Bloom은 Stephen의 이런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

상대방(Stephen)이 신문의 2면(Deasey의 글)을 읽고 있는 동안, Bloom은 3면의 *the third event at Ascot*(에스콧 경마의 세 번째 경기)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1위는 *Throwaway*호, 2위는 *Zinfandel*호, 3위는 *bay filly Sceptre*호 순이다. <드로어웨이>호에 건 경마광들은 20배의 배당을 받는 대성공을 거두었다(20 to 1 *Throwaway*(off)). Bloom은 *halfbaked Lyons*(푹내기 (Bantam) 라이언즈)가 경마에서 결정을 바꿔서 돈을 잃은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짐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Guesswork it reduced itself to [fail] eventually*(L 1293-94).

(L 1297~) Bloom과 Stephen의 대화 도중에 *cabman*(역마차 주인)이 끼어든다. 그는 곧 *Return of Parnell*(‘파넬의 귀환’)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Parnell의 실각 쪽으로 몰아간다: *Pride it was killed him*[Parnell]. (L 1299-300) Keeper는 Parnell의 *coffin*(관)이 *stones*(돌맹이)로 차 있었기 때문에, Parnell이 죽지 않고 단지 Africa로 사라졌을 뿐이라고 추측한다. 또한 Parnell이 이름을 De Wet으로 *change*(개명)했고, 그가 *priests*(사제들)와 싸운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Parnell을 두둔한다. 이에 Bloom은 *keeper*가 한 말들은 20년 전의 일이며 *case of tarbarrels*(타르통(桶)의 사건)이라고 일축하면서 그런 소문의 신빙

성을 의심한다. Bloom은 Parnell의 죽음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하면서 Parnell이 acute pneumonia(급성폐렴)이나 cold(감기)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또 Parnell이 썼던 Fox and Stewart 등의 alias(가명)에 비취볼 때 그의 whereabouts(행방)에 대해 여러 possibility(가능성)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가 살아 있다면 170cm(5 feet 10 or 11) 키의 a born leader of men(타고난 대중의 지도자, L 1325)은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결국 Parnell은 the idol with feet of clay(진흙의 발을 지닌 우상)로서 자신의 seventytwo henchmen(72명의 추종자)들의 mudslinging(추한 싸움)으로 멸망한 것이다. 한편 Bloom은 anti-Parnell과 사람들이 United Ireland(<유나이티드 아일랜드>)사의 the type(활자판)를 파괴하던 순간, 운 좋게 Parnell을 한 번 보았다. 그 때 Bloom은 땅에 떨어진 Parnell의 silk hat을 집어주었다. 그 위급한 순간에도 Parnell은 Bloom에게 “Thank you”하고 말하는 천성을 지녔다: “what’s bred in the bone.”(L 1338-39) Bloom은 이 사건을 지금도 매우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야기는 다시 Parnell의 return(귀국)으로 되돌아간다. 그가 귀국하였을 때 terrier(테리어犬)를 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하며, 귀국 후 벌어질 shillyshally(우유부단한 일)에 대해 말한다. 귀국한 Parnell이 the man in possession(집달리)과 부딪히면, Roger Charles Tichborne 같은 사기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credential(신분증)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이는 distinguished personage(저명한 인물)에 대한 민심의 the lie of the land(형세, 향방)가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 가를 암시하고 있다.

(L 1352~) 그 때, shebeen proprietor(무허가 선술집 주인)가 Parnell을 망치게 한 Katherine O’Shea(오셰이)를 심하게 욕한다: “—That bitch, that English whore, did for him[Parnell], ...” 그러자 Henry Campbell은 O’Shea를 Fine lump of a woman(귀염둥이 여인)으로 남자들에게 성적 매력이 있는 여성이었다고 그녀를 두둔한다. Campbell이 그녀의 남편이 captain(대위)이거나 officer(士官)이었다고 하자, Skin-the-Goat(산양 껍테기)는 O’Shea의 husband를 cottonball(면화깎지, 겉과 속이 다른 놈)이라고 매도한다.

Parnell이 이렇게 humorous character(익살스런 인물)로 회자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Bloom은 Parnell에 대해 어떤 suspicion of a smile(의혹의 미소)도 없이 당시의 historic story(역사적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당

시에는 Parnell과 O'Shea의 affectionate letters(연애편지)마저 폭로되었다. 그 편지가 사람들에게 the talk(화제)가 되고, 이러한 staggering blow(치명적 타격)이 Parnell의 몰락을 가져왔다. Parnell은 O'Shea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declared favourite(엄연한 애인)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witnessbox(증인석)에서 폭로되었다. 그는 Parnell이 O'Shea의 2층 아파트에 들어갔다기 기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 scrambling out of an upstairs apartment with the assistance of a ladder in night apparel, ..." (L 1376-77) 주간잡지(the weeklies)에 실린 그들의 애정행각과 the lubric(외설스런 기사)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Parnell과 O'Shea의 행동은 forgetting home ties(가정의 유대를 망각)한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생활의 문제가 노출되기 마련이다: "Can real love, supposing there happens to be another chap in the case, exist between married folk? Poser." (L 1385-86) Bloom의 명상은 이러한 간음이나 정치적 스캔들을 일종의 감정적 충동의 견지에서 생각하며, 부정(infidelity)의 동기를 합리화하고 혼외정사의 매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취약성(spiritual vulnerability)에 대해 관용적으로 대하려고 한다. 사실 O'Shea의 남편은 military supernumerary(예비역 육군사관)과 비교하면 A magnificent specimen of a manhood(훌륭한 남성의 표본적 인물)이었는데, Parnell 때문에 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에 the fallen leader(몰락한 지도자) Parnell은 inflammable(격분하기 쉬운) 성질을 지녔는데, 그런 성질이 way to fame(명성의 길)을 개척하게 할 것이라 걸 간파한 여인이 O'Shea였다. 그러나 이 둘의 육체적 관계가 알려지게 되자 staunch adherents(충실한 지지자들)였던 priests and ministers(신부와 목사들)와 evicted tenants(추방된 소작농들)가 결국 Parnell에게서 등을 돌렸다: "..., thereby heaping coals of fire on his head much in the same way as the fabled ass's kick." (L 1399~400). Parnell과 O'Shea의 관계에서 이런 과거의 일들을 정리해 보면, Parnell의 coming back(귀국)은 the worst thing(가장 나쁜 방책)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Parnell의 그런 행동을 인정할 수 없어 배신(betrayal)하게 된다: "[t]hings always moved with the times." (L 1403) 화자의 시선이 다시 Bloom에게 향한다. Bloom은 한동안 가보지 못한 Irishtown strand(아이리쉬 해변)을 상기한다. 그가 north side(북부 지역)으로 이사 간 후, 아이리쉬 해변은 많이 변했다. 그러다, 지역에 관계없이 case of hot passion(격정의 사건)으로 유명했던 Parnell과 O'Shea 사

건을 떠올린다. Bloom은 O'Shea가 passionate(정열적인)한 여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를 스페인 태생이거나 혼혈녀로 일을 대충하려고 하지 않으며, 예의가 없으며, 남국의 passionate abandon(정열적인 방종)을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관점에서 Bloom은 Stephen에게 O'Shea 역시 스페인 태생이라고 말한다: "And, if I don't greatly mistake she[O'Shea] was Spanish too" (L 1412-13). Stephen은 Bloom의 말에 The king of Spain's daughter(스페인 왕의 딸)라고 동의 하면서 <스페인의 귀부인들(Spanish Ladies)>이라는 민요 가사를 해매면서 읊조린다. Bloom은 Stephen의 대답에 움찔하다가, O'Shea가 (결혼 후) Spain에 살았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 <Discussion>

1. 여기서 Bloom의 실제적 경제관·종교관은 주로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Stephen은 여전히 이상적인 경제관·종교관을 말하고 있다. 이 둘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또한 경제적, 종교적 관점에서 개인의 도덕성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가?
2. the Gold Cup에서 1등을 한 Throwaway호가 Sceptre호를 이긴 사건은 주로 탈식민주적 관점으로 논의되는 데, 그밖에 논의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한 Zinfandel호는 어떤 connotation을 갖고 있는가?
3. 귀국하는 Parnell을 공격하라고 할 때 왜 terrier(dog)견을 푼다고 했을까? Terrier와 Parnell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 (L 1339-40)
4. Parnell의 몰락과 Parnell을 지지했던 priests/tenants의 betrayal에는 Parnell과 O'Shea의 치정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서 나타나는 '배신의 주제'는 윤리적·정치적 문제에서 어떤 connotation을 갖고 있나?
5. Bloom의 평가를 근거로 할 때, O'Shea는 기질적으로 hot passion(격정)을 지녔으며, matrimonial problem(부부 문제)을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다. O'Shea의 이런 기질은 Molly에게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그 밖에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또한 O'Shea와 Molly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나?

### <김경숙>

530쪽에서 대두되는 파넬의 귀환에 대한 대화는 여러 면에서 “Eumaeus”장 혹은 *Ulysses*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아우르는 듯하다. 일단 16장의 배경이 되는 Cabman’s shelter에서 잡담을 하고 있는 수부들의 항해와 귀환이 그러하고, 하루 일정을 마치고 귀가를 앞둔 블룸이 그러하고, 작품 전체의 테마를 이루는 오디세이의 귀환 역시 상기시킨다. 또한 파넬의 죽음은 블룸이 참석했었던 디그님의 장례식도 다시 상기시킨다. 마지막으로 파넬이 연루된 불륜사건은 몰리와 보일런을 연상시킨다. 이렇듯 16장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집약시키고 있다.

### <양진아>

제89회 2011년 8월 27일 독회는 16장 (l.l. 1216~1420) “예정에 없던 한자시험”으로 인해 1시간밖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전반적인 소재는 파넬 (Parnell)에 관한 내용이며, 주제는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밀애가 성추문으로 불거져, 사회의 큰 문제시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악천후가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것 같다.

발제를 맡고 계시는 박진훈 선생님께서는 발제문을 꼼꼼하게 한국어로 정리해 오셔, 아만다 선생님과 저스틴 선생님을 위해 영어로 발제문을 설명해주신다. 87회 독회 때, 7분간 전쟁(1.1105 7 minutes’ war)을 “패싸움”으로 설명하여 웃음을 주시기도 했고, 이번엔 파넬과의 추문에 쌓인 오셰이(O’shea)를 미국의 클링턴 (Clinton) 전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의 비서인 루윈스키(Lewinsky)라는 비유적 설명이 참으로 흥미로웠다. 발제자의 설명 전에, 항상 오디오 파일로 된 원문을 총무 선생님께서 준비해와 듣게 되는데 모두들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갖는다. 사실, 발제자의 발표하는 고충도 상당하겠지만, 항상 오디오파일을 오늘 할 라인에 맞춰 준비하고 2부로 나눠 하는 독회시간마다 맞춰 들려주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형식적인 독회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독회 발제자의 설명이 끝나면 자유롭게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많은 교수님들과 저와 같은 학생들이 교수나 학생이라는 직함이 모두 선생님으로 변하여 서슴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에 존중을 한다. 가끔 나같이 어린 학생이 고심 끝에 하는 발언이지만 그 발언에 관심

을 가져주실 때마다 너무나 깜짝 놀라곤 한다. 올해 6월부터~8월까지 미국에 가서 독회에 불참하셨던 김종진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많은 준비를 해 오서 후배학자들을 양성에 힘쓰시며, 재미있는 조이스에 얽힌 이야기로 흥미를 유발해주시다. 또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희망의 한 마디에 조이스의 글이 난해해 1시간 넘게 보다가 집어 치워 버릴까 하다가도 참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인내심은 모 교수님께서서는 조이스의 문학에 관한 생각으로 한때 강호동도 모르셨다는 일화가 정말 맘에 와 닿게 된다. 그런데 가끔은 꼭 사포처럼 까칠한 분도 있으신데 그것은 조이스의 속임수에 해매 때마다 일침이 되기도 한다.

이번 독회토론 때는 테리어(terrier)에 관한 폭소가 있었다. 테리어가 사냥개로 이빨과 눈매가 날카롭고 다리가 길고 몸이 날렵하여 잘 뛰는 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짐케리가 나온 마스크2에 등장한 개였다. 왈왈왈 짖는 소리만 크고 잘 뛰지도 못하는 땅딸만한 강아지로 당시 정치인들을 비유적 묘사였던 것이다. 완전 박장대소였다. 89회 때는 a suit of brown paper이 포장지로 몸을 가린 것으로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옷을 완전히 벗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었고, Ringsend라는 지명이 Rings-end로 우리나라의 “땅 끝 마을”과 같다는 설명을 듣고 깨달음의 감동에 가슴이 찌릿했다. 만약 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위 3가지는 평생 알지 못한 채 지나갔을 것이다. 위 세 가지 사례 외에도 독회 토론 시간엔 질문하는 법, 대답하는 법, 그리고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등 많은 것들이 오가며 익히게 된다.

토론 후에 항상 저녁을 먹고, 간단히 돈독한 우애와 무사히 끝낸 독회를 축하하는 술을 함께 마시게 되는데, 연배가 있으신 교수님께서 챙겨주실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정”과 독회시간에 다하지 못한 이야기가 오간다. 이 때 우리 독회가 2002년 8월부터 시작했고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가 오가는 등 나의 경우 부족한 사회성이 성장하는 계기를 갖고 어른들과의 예의도 배우게 되고, 점점 먹여가는 나이에 맞는 멋진 행동은 저런 것이구나 깨닫기도 한다. 무엇보다 한 달에 한번 뵈면서 그동안의 안부를 묻게 되는데 조이스학자이신 교수님들은 정말 그 개성이 특이하여 대화를 할 때 배꼽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정도의 패턴이 내가 본 2010년 10월부터 참석했던 항상 우리 <울리시스 독회>의 사이클인 것 같다. 그런데 나의 눈이 가끔 아니 자주 객관적이지 못해 폭소를 자아냈던 몇 사건들이 있어, 자세한 내용들은 직접 경험해보길 강력 추천하는 바이다.

## 제 90회 『율리시스』 독회

## &lt;모임&gt;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802호

일시: 2011. 9. 24. (토) 오후 2:00-5:30

독회진행자: 박진훈

범위: *Ulysses*, Chapter 16 “Eumaeus,” (1421~1642행)

참석자: 이종일, 김종건, 김길중, 민태운, 길혜령, 박진훈, 손승희, 이영심, 김경숙,  
강서정, 김상욱, 양진이(세종대 대학원생), Justin, Amanda(이상 Harvard  
대학원생)

## &lt;발제&gt;

## &lt;L 1421~1642의 대략적인 내용 정리&gt;

Photo of Molly, Sharing Molly(’s photo) with Stephen, Adultery of Parnell and O’Shea, Picking up the Parnell’s silk hat, Menton’s headgear, Concerning about Stephen’s wasting time, Deciding on bringing Stephen to Bloom’s home

(L 1421~) Bloom은 O’Shea가 정열적인 Spain 태생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린 후, pocket에 손을 넣는다. 그는 <(죄)의 쾌락>(Sweets of (sin))이라는 책을 avoid하며, 반납일이 지난 도서관 책을 remind하면서, pocketbook(수첩)을 꺼낸다. 수첩에서 a faded photo(퇴색한 사진)을 꺼내 table에 올려놓는다. Bloom은 Stephen에게 ‘Spanish type’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 Molly의 사진을 보여준다: “-Do you consider, ..., that a Spanish type?” (L 1424-25) 사진에는 매우 육감적인 미인 (voluptuous beauty) *prima donna* Madam Marion Tweedy가 있다. 거기에는 large sized lady(몸집이 큰 귀부인)가 그녀의 breasts(유방)가 잘 보이도록 bosom(앞가슴)을 liberal display(노출시키고)하고, 목이 깊어 팬 evening dress(야회복) 차림에, 두툼한 입술을 약간 벌린 채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고, piano 곁에 정중한 책 서 있다. 피아노 악보대(rest) 위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ballad <In Old Madrid>가 놓

여 있다. 이 사진은 1896년 경 photographic artist(사진사) Lafayette가 찍은 것이다. Molly는 daughter of Major Brian Tweedy(브라이언 트위디 소령의 딸)로, 16세에 사교계에 최초로 나서 remarkable proficiency(놀라운 재능)을 과시한 singer이다. 화자의 진술에 의하면, Bloom이 Molly의 육체에 매우 감탄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분히 그의 예술가적 기질 탓이다. Bloom이 (yesterday) afternoon에 National Museum에서 보았던 Grecian statues(그리스의 조각품들)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Molly의 사진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b]ecause it[photo] simply wasn’t art in a word.” (L 1454-55)

이때 Bloom은 Stephen이 혼자 Molly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Jack Tar(水夫, ㉔)가 한 것처럼 소변을 보겠다며 자리를 비켜줄까 하는 유혹을 느낀다. 오늘은 warm pleasant night(덥고 쾌적한 밤)이나, 계절을 생각하면 wonderfully cool(놀랍도록 서늘)한 날씨다. 그러나 Bloom은 sat tight(꼭 참고 앉아)하면서 Stephen이 Molly의 성숙하고 ‘embonpoint(풍만한 육체)’의 균형미를 감상하도록 ...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렸다. Bloom은 Stephen에게 아내의 육체적 미와 정신적 소양을 사랑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순간 Bloom은 자신이 귀가했을 때 Molly가 집에 없을 것을 예측하고 불안해한다.

(L 1476~) Bloom은 educated, *distingué* and impulsive(교양 있고, 탁월한 그리고 충동적인)한 Stephen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이 기쁘다. 게다가 Stephen은 Bloom에게 “the (Molly’s) picture was handsome”(L 1479)이라고 말해준다. 여기서 Bloom은 Stephen(son-colleague)과 함께 Molly(mother-lover)에 대한 정열적인 감탄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를 바란다. 이처럼 젊은이와 아내를 분담하는 감정은 lifelong slur(일생의 치욕)이 되는 matrimonial tangle(결혼의 분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Matrimonial tangle에 대한 생각은 Bloom의 의식 속에 다시 Parnell과 O’Shea의 부적절한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The decree nisi(조건부 이혼판결)이 내려진 two misdemeanants(두 범법자)는 결국 mantle of adultery(간통의 누명)를 뒤집어썼다. Parnell은 이 와중에도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Bloom은 adultery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이 사건이 ‘두 사람만의 사건’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앞서 Parnell(uncrowned king)의 silk hat을 집어준 사건(실추된 권위의 회복을 상징)을 다시 떠올린다. United Ireland의 the O’Brienite scribes(오브라이언파의 문사들)가 Parnell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자, Parnell의 henchmen

(부하들, about 12 men)이 printing works(인쇄공장)를 뚫고 들어가 typecases(활자기들)를 파괴했다. 이 사건 이후로 Parnell은 급격히 달라지긴 했어도 대중에게 여전히 commanding figure(당당한 인물)로 나타났다. Bloom은 당시 hullabaloo(소동)가 대단히 격렬할 때 about the pit of the stomach(명치 근처)를 찔려 minor injury(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 와중에도 Bloom은 in the crush(군중 속에서) 땅에 떨어진 Parnell의 silk hat을 집어주었다. 영웅(hero)이며 gentleman(신사)인 Parnell은 Bloom의 소박한 행위에 대하여 ‘perfect aplomb(완전한 침착성)’으로 그에게 감사했다: “Thank you, sir,”(L 1523) 이는 Bloom이 이른 아침 Dignam의 burial(장례식) 후, legal profession(변호사) John Henry Menton의 headgear(모자)를 set to right(올바로 고쳐준)한 비슷한 사건에서, Menton이 Bloom에게 보인 냉담하고 ornament(가식적 반응)에 비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행동이다. Menton의 행동은 한마디로 예절의 파괴였다. 똑 같은 사건에 대해 Parnell과 Menton의 반응이 다르듯 history도 반복되는 사건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h]istory repeating itself with a difference,” (L 1525-26)

한편 Bloom이 계속적으로 토로하는 Parnell에 대한 명상은 그의 주변에서 떠들어대는 마부들의 귀에 거슬리는 농담과는 매우 대조적이고 질적으로 다르다. 주변에서 떠들고 있는 Cabmen의 blatant jokes(떠들썩한 농담)에 Bloom은 기분이 몹시 언짢다(incensed). Parnell과 O’Shea의 관계는 이들의 loving position(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한 the usual boy Jones(밀고자, B. Duggan)가 보낸 anonymous letter(익명의 편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domestic rumpus(가정적인 소란)을 일으켰다. 이 소란은 wife가 begging forgiveness(용서를 빌고)하고 husband가 overlook the matter(그 사건을 관대히 넘기는 것)로 끝이 난다. Narrator는 이와 같은 결혼한 feminine infatuation(여성의 치정 사건)은 husband와 주변 남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L 1553~) Bloom의 시선이 다시 Stephen에게로 향한다. Bloom은 훌륭한 brain을 축복받은 Stephen이 nice dose(지독한 성병)을 옮을 수도 있는 profligate women(방탕한 여인들)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몹시 애석해 한다(thousand pities). 어느 날 Miss Right(정의嬢)을 wife로 맞이하겠지만, 그 때까지 ladies’ society(귀부인과의 교제)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 Bloom은 Stephen에게 Miss Ferguson과의 관계를 pump(떠벌)할 생각은 아니지만 (Bloom은 Ferguson을

Stephen의 lover로 오인함) company of smirking misses(능글맞게 웃는 처녀들과의 교제)에 bask in(탐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됐다. Bloom은 이 젊은이가 현재 homeless(가정도 없이)한 상태에서 landlady(하숙집주인)에게 rooked(돈을 빼앗기고 있다)하는 처지를 생각하자 Stephen을 향한 애절한 부정(paternity, 父情)이 솟구친다. 그는 떠돌아다니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Stephen에게 eggflip(계란술)이나 Humpty Dumpty(달걀 요리)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한다.

Bloom은 slim form and tired(가냘픈 몸매에 피곤해 보이는)한 Stephen에게 몇 시에 저녁을 먹었냐고 묻는다: “-At what o'clock did you dine?” (L 1572) Stephen이 ‘yesterday’라고 하자, 벌써 하루가 지나 지금은 already tomorrow Friday(이미 내일인 금요일) 새벽 1시라는 사실을 기억해낸다. 이에 Stephen은 다시 The day before yesterday(그제께)라고 자신의 말을 고쳐 말한다.

Stephen의 이런 intelligence에 놀란 Bloom은 생각에 잠겼다(reflected). 비록 그들은 everything(만사)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말하자면 거기에는 certain analogy(어떤 유사성)가 있다: “[a]s if both their minds were travelling, so to speak, in the one train of thought.” (“마치 그들 두 개의 마음이, 이를테면, 생각이 같은 궤도를 달리고 있는 듯했다.” L 1580-81) 그리하여 Bloom은 자기가 현재 Stephen의 나이인 22살 때 politics(정치)를 약간 해보았고(dabbling in), 지금의 Stephen처럼 ultra ideas(과격한 사상)에 regard(敬意)를 품었던 시절을 상기해본다. 예를 들면, the evicted tenants question(축출된 小作人の 문제)에 대해 Bloom은 peasant possession(소작인의 권익)을 철저히 sympathy(동정)했었다. (후에 그런 mistake를 부분적으로나마 cure했다) Bloom은 또한 매우 급진적인 노동사회주의자, 즉 지주배신자(backtothelander)로서 Michael Davitt보다 a step farther(더 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was twitted). 그것이 Barney kiernan’s에서 사람들이 Bloom을 비꼬는 말에 몹시 분개했던 이유였다. 그러나 Bloom은 pugnacious of mortals(싸움을 즐기는 인물)는 결코 아니었다. Bloom은 Politics 세계가 propaganda(宣傳)와 mutual animosity(상호 敵意)의 발로에서 수반되는(entailed) misery and suffering(비참함과 고통), 즉 destruction of the fittest(적자멸망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곳임을 의식하고 있었다.

(L 1603~) 이제 사실 새벽 1시가 다 되어, Bloom은 Stephen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 상황에서 Stephen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한다. 먼저

Stephen(hurt his hand)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a dog with a lame paw(다리를 절뚝거리는 개)를 Ontario Terrace의 집으로 데리고 왔던 날처럼 불의의 사건들이 발생(Molly가 몹시 화를 냄)하여 altogether(만사)를 엉망으로 spoil(망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tephen이 Sandycove(의 Martello Tower)까지 가려해도 거리가 너무 멀어 갈 수도 없는 처지이다. two alternatives 사이에서 약간 perplexity(망설)하던 Bloom은 결국 the opportunity(이런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기로 한다. Bloom은 Stephen의 기질 - a shade standoffish or not over effusive (약간 쌀쌀하고 혹은 심정을 토로할 것 같지 않은 - 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다. 예를 들면 Stephen은 Bloom이 coin(돈)과 wardrobe(의류)를 준다고 해도 받지 않을 청년이고, Bloom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아무튼 hidebound [dog] precedent(가축과 빼만 남은 개를 데려온 선례)을 피하기 위해(eschew), Stephen에게 a cup of Epps's cocoa and a shakedown(에프스제(製) 코코아와 임시 잠자리) 그리고 pillow(베개)를 마련하기로 한다. 어떤 rumpus(소동)가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데, 수부가 시야에 들어온다. that merry old soul, the grasswidower(그 일시적인 홀아비, 저 태평한 영감, ㉔ L 1626)는 Queenstown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의 bawdyhouse(창녀집)에 머물 것이 뻔하다. 거기서 sixchamber revolver anecdotes(6연발 권총 사건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potheen(밀조 위스키)을 마시면서 떠벌리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Bloom은 the blood and ouns champion(창상(創傷)의 투사, Citizen)에게 말했던 repartee(재치 있는 응답)를 생각하며 흡족해한다: “[h]is god being a jew,” (L 1638) Irishmen은 자신들의 하느님이 Ireland의 어떤 곳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분도 유대인이다: “Your god was a jew.” (L 1641-42)

### <Discussion>

1. Bloom이 Stephen에게 Molly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Molly를 소개시켜 주려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행동이 Bloom의 실추된 marital authority(夫權)의 회복을 의미하는가?
2. 모자 사건에서 Parnell과 Menton의 반응에 대해 Bloom의 판단은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Etiquette의 문제 그 이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3. Bloom이 Molly에게 대하는 marital authority(夫權)의 회복과 Stephen을 걱정하는 부정(paternity, 父情)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 Bloom이 취하는 행동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4. Bloom의 20대 정치관(Point of view of politics)은 radical하고 사회주의적 개혁을 주장했는데 현재의 Bloom은 conservative하다. 이렇게 정치관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 <토론 및 의견>

#### <이종일>

블룸이 몰리의 사진을 스티븐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갖는 함축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 <김경숙>

그것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비켜주기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양진이>

스티븐에게 몰리와 보일런의 관계를 꺼내기 위한 출발점인 같습니다.

#### <김종건>

아름다운 아내를 스티븐에게 자랑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 <김상욱>

하필 이 대목에서 몰리의 사진이 등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민태운>

스페인이나 파넬과 오웨이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이 그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 <김종건>

*Sweets of the Sin*의 여주인공의 특징, 특히 Opulent Curve적인 점이 몰리의 특징가운데 하나이므로 몰리에 대한 자랑이라고 볼 수 있다. 또는 일부 학자들은 스티븐을 동성애로 보고 있어서 블룸이 스티븐과 자신의 아내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바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 &lt;길혜령&gt;

맞아요, *Sweets of Sin*의 여주인공도 두 남자를 공유하거든요.

## &lt;김상욱&gt;

그리고 블룸은 왜 *Sweets of Sin*을 감추려고 했는지?

## &lt;이종일&gt;

키티 오셰이와 파넬의 간통과 같은 주제로 스티븐과 몰리의 관계를 유도한다.

## &lt;김길중&gt;

스티븐과 블룸이 동일인의 두 가지 양상이라면 “wife”는 결국은 같은 인물인 한 대상을 보는 것이다.

## &lt;김종건&gt;

육체적 풍만함이라는 점에서 *Sweets of Sin*과 몰리는 유사성이 있다. 블룸은 스티븐의 지적인 능력에 매료되어 있다.

## &lt;박진훈&gt;

스티븐과 몰리가 둘 다 노래는 잘하므로 한 팀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 &lt;양진이&gt;

스티븐에게 몰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스티븐을 떠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lt;길혜령&gt;

스티븐이 만약 몰리의 사진을 보고 반한다면 그녀의 남자관계가 복잡한 이유가 몰리의 잘못은 아니라고 위안받고 싶다.

## &lt;이종일&gt;

스티븐에게도 창녀보다는 몰리가 더 나은 것이며, 몰리에게도 보일런보다는 스티븐이 더 나은 것일 수도 있다.

## &lt;김길중&gt;

그런 근거가 있었나요?

## &lt;이종일&gt;

블룸은 스티븐과 몰리 모두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일종의 중매장이 역할을 자처하고 싶은 지도 모릅니다.

## &lt;김상욱&gt;

블룸은 아름답지만 30대 여성인 몰리와 더 젊은 스티븐이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lt;민태운&gt;

보일런과 몰리, 오웨이와 파넬, 이런식으로 객관화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자신의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 &lt;김길중&gt;

스페인에 관한 모티브가 여러번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1542행의 “others” 다음에 생략된 것은 무엇인지요? 혹시 Several other connections가 맞는 것인지요?

## &lt;양진이&gt;

사진은 제대로 된 예술이 아닌 것 같아요.

## &lt;이종일&gt;

이 맥락에서는 예술이 아닌 것이 맞는 것 같네요.

## &lt;김종건&gt;

하지만, 사진사를 예술가라고 이야기해놓고,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줍니다.

## &lt;박진훈&gt;

“Puritanism”이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가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lt;김종건&gt;

그리스 조각들이 예술품입니다. “symmetry”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엄격성(puritanism)은 “symmetry”와 연결됩니다.

## &lt;김경숙&gt;

대명사 “it”은 “marble”이고 “puritanism”은 “엄격함”의 의미입니다.

## &lt;이종일&gt;

조각과 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비교라고 할 수 있지요.

## &lt;김상욱&gt;

사진과 조각을 견주어 비교해 볼 때는, 사진은 예술이 될 수 없을 것 같네요.

## &lt;김길중&gt;

사진은 보여주는 부분만 보여주고 다른 부분은 지우기 때문에 조이스의 사진에 대한 언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lt;김경숙&gt;

이 부분에서는 생략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 &lt;이종일&gt;

왜 생략했을까? 그 이유는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비밀”(Secrecy)라는 말을 완성하기 전에 튀어나온 것 같네요.

## &lt;김길중&gt;

이러한 생략은 구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의식의 흐름(억압등이 포함됨)이 등장한다.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 &lt;김종건&gt;

뻘한 것도 생략하는 셈입니다.

## &lt;김경숙&gt;

장황한 문체를 쓰고 있으면서, 왜 생략을 하는 것인지? Line 1441에서 왜 “intimated”라는 단어는 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lt;길혜령&gt;

그리고 “legal wife”라는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 &lt;이종일&gt;

집나간 아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것이죠.

## &lt;김길중&gt;

스티븐 일행이 사창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매춘은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 &lt;민태운&gt;

파넬에 관해서 블룸이 연관짓고 있는 내용은 간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lt;이종일&gt;

이전까지는 Narrator가 블룸에게 Mr.라는 호칭을 붙였는데, 이 부분부터는 Mr.가 생략되고 그냥 블룸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lt;박진훈&gt;

또한 파넬에 대한 앞 부분에서 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 &lt;김길중&gt;

조이스의 “파넬론”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 &lt;이종일&gt;

하지만, 파넬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상화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유사한 발음이나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굉장히 “조이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lt;양진이&gt;

블룸이 스티븐이 집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 &lt;Justine&gt;

스티븐과 블룸의 상황작용, 즉 대화가 계속되는데, 스티븐은 이상한 말을 지껄이고 있고 블룸은 스티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그를 위해 무엇이려고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 &lt;이종일&gt;

Line 1570의 “maternal nutrient”는 우유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몰리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다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lt;김경숙&gt;

하지만, 몰리는 보일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unadulterated maternal nutrient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lt;이종일&gt;

Line 1585의 “those same ultra idea”,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lt;박진훈&gt;

“급진적인 생각들”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lt;민태운&gt;

블룸이 젊었을 때, 즉, 스티븐의 나이였을 때는 그도 역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lt;김종건&gt;

그렇지요. 블룸도 젊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그리고 P537의 문단이 상당히 긴데요, 특히 마지막 문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64행의 “he”는 누구라고 생각들 하시는지요?

#### <길혜령>

“he”는 신이나 혹은 예수가 아닐까요?

#### <김종진>

“he”는 “Citizen”입니다.

#### <이종일>

Carrick-on-Shannon이나 sligo는 대표적인 아일랜드 지명인데, 이것은 신이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김종진>

맞습니다. 이 지역은 대표적인 아일랜드 민족주의 지역입니다.

#### <양진이>

박진감 넘치는 토론이 있었던 율리시스 제90회 독회(1421~1642행)에서 주 모티브는 “가장”(makebelieve)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1. “블룸은 스티븐에게 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었나?”에 대하여: 파넬의 파멸에 관해 톰인 주인장은 오웨이를 욕하자 헨리 캠벨 님은 마부이자 자칭 해리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쁜 여인이 아니라는 뜻에서 오시에 여인 사진(1354-6)을 이 발소(barber’s)에서 본적 있다고 말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점점 진전되어 블룸은 그 여성의 출신까지 논하게 되어 같은 태생인 자신의 아내 몰리의 사진을 스티븐에게 내놓게 된다. 그 사진은 몰리의 16세에 촬영한 사진으로 96년경의 아내와 같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장면인 톰이 해리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사진으로 본 오웨이가 한 창인 젊고 유망한 남성을 홀려 파멸에 이르게 하는 나쁜 여성(English whore)라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였을까? 아마도 사진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일종의 포토샵)일 것이고, 웨스트모어랜드가의 라파예트의 작품인 아내의 가슴도 8년 전의 가슴이지 16세의 가슴이 아니란 뜻에서 내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내보이면 자신의 아내가 지금쯤 파넬과 오웨이와 같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넘치지 알리며 자신의 궁극적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막상 아내 사진을 보자 오늘 오후에 박물관에서 본 완벽한 대리석과

비교하며, 스티븐이 이 사진을 보고 차이를 생리적 반응에 대해 생각하는 블룸의 독백인 이번 토론에서 가장 논의가 되었던 I.I. 1451~1455 (Marble could give the original, shoulders, back, all the symmetry, all the rest. Yes, puritanisme, it does though Saint Joseph's sovereign thievery alors (Bandez!) Figne toi trop. Whereas no photo could because it simply wasn't art in a word)에 대한 번역을 하자면, 대리석은 그대로를 재현할 수 있어, 어깨도, 등도, 모든 대칭적인 것도, 나머지 모두. 그래, 청교도파(淸教徒派), 그건 그렇지만 성 요셉의 최고의 도둑질이 있어 옳아 (그게 단단해져!) 자위나 해. 이런 사실에서 보면 사진은 할 수 없어 그 이유는 사진은 한 마디로 간단히 예술이 아니었어. 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교도주의자들의 가장의 모티브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 두 번째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I.I.1637~1642 로

At the same time he inwardly chuckled over his gentle repartee to ①the blood and ouns champion about his god being a jew. People could put up with being bitten by a wolf but what properly riled them was a bite from ②a sheep. The most vulnerable point too of tender Achilles. Your god was a jew. Because mostly they appeared to imagine ③he came from Carrick-on-Ahannon or somewhereabouts in the country Sligo.

①은 당연히 12장 바니 키어넌 술집에서 만났던 모순적인 시티즌이고, ②는 블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으나 제 생각에는 이솝 우화의 양의 탈을 쓴 늑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식하는 인물을 뜻하며, 씨티즌과 노수부 등 위선적인 인물은 모두 해당한다고 본다. 여기서 “a wolf in sheep's clothing”을 양을 탈을 쓴 이리로 온순한 것을 가장한 위험한 인물이라고 사전에서만 찾아 생각한다면 블룸이지만, 아래 인용을 보듯 일반적인 목동과 양치는 개를 속인 약은 늑대를 뜻한다. 전체 내용으로 봐도 완벽한 위선자라고 해도 정확한 약점은 있었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다. ③ 그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시티즌과 하느님(God)이 대부분 있었는데 나의 의견은 다르다. 국수주의 빠져 유태인인 신까지도 아일랜드인으로 바꾸던 상황을 묘사한 부분으로, 하느님은 하늘에 계속 계셨으며 그의 독생자인 예수님(Jesus)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했다는 성경 말씀으로 인해 어디 출신인 신은 예수님이신 것이다.

A Wolf found great difficulty in getting at the sheep owing to the vigilance of the shepherd and his dogs. But one day it found the skin of a sheep that had been flayed and thrown aside, so it put it on over its own pelt and strolled down among the sheep. The Lamb that belonged to the sheep, whose skin the Wolf was wearing, began to follow the Wolf in the Sheep's clothing; so, leading the Lamb a little apart, he soon made a meal off her, and for some time he succeeded in deceiving the sheep, and enjoying hearty meals. Appearances are deceptive. (*Aesop's Fables*, "A Wolf in Sheep's Clothing")

9월 독회 중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1.1636 let x equal my right name and address 이다. 이 부분은 자세히 꼼꼼히 따져 읽어보면, 수부가 여기를 마치고 늙은 매춘부들이 사는 창녀촌(bawdy house)이 있는 Sheriff street에 가서는 보안관인 척 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바니 키어넨 시티즌 처럼 술이나 담배를 무료로 얻고 즐기는 가식(makebelieve)적인 양의 탈을 쓴 늑대짓을 할 것이라는 블룸의 짐작이다. 이 부분도 역시 이익을 노리는 위선자의 가장의 모티브의 일부이다.

전반적으로 16장은 주인공 블룸의 주요 생각 부분으로 1-1273 Mr. Bloom, 1274-1294 Bloom, 1295-1495 Bloom, 1495-1574 B, 1575-1651 Bloom, 1652-끝까지를 Bloom으로 의미 있는 이름의 변화는 참으로 흥미 있는 부분으로 김종건 교수님께서 이야기 해주셨으면, 오랜 노력을 하신 조이스 학자풍을 되새길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아쉬웠다. 16장은 블룸 장으로 Bloom이름에 관해 논한다는 것으로 의미 있는 일이며 이번 독회의 핵심 중에 하나였다. 또한 9월 독회의 의견이 너무나 달라 독회 후에도 혼란을 야기했던 것들이 독회 기록을 통해 정리가 되어 남겨진다는 것이 나에게 안도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다.

## 제 91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802호

일시: 2011. 10. 22. (토) 오후 2:00-5:30

독회진행자: 박진훈

범위: *Ulysses*, Chapter 16 “Eumaeus,” (L 1643 ~ End)

참석자: 김종건, 남기현, 이종일, 홍덕선, 박진훈, 강서정, 손승희, 민태운, 이영심,  
윤희환, 양진이(세종대 대학원생), Amanda, Justin(이상 Harvard 대학원생)

<L 1643~1894, End의 대략적인 내용 요약>

Bloom suggests leaving the Cabman’s Shelter. They talk about music(musicians, musical instrument lute etc.), and Bloom shows sympathy for the animals (esp. horse), Thinking of the concert utilizing Stephen’s musical gift, they go to the Bloom’s house together.

(L 1643~) Bloom은 Sailor의 방랑기(wandering)와 음주(potheen, 밀조위스키) 그리고 Citizen에게 했던 repartee(재치 있는 응답)를 생각하다, 눈길을 Stephen에게로 돌린다. 이어 Bloom은 Molly의 photo(사진)를 pocket에 넣으면서 입을 뗀다. 그는 Stephen에게 이곳은 stuffy(답답)하니 자신의 diggings(집)로 가서 얘기를 더 하자고 제의한다: “..., as it’s rather stuffy here you[Stephen] just come home with me[Bloom] and talk things over. ... Do you like cocoa? (L 1644-46) Bloom이 photo를 pocketing하며 keeper of the shanty(술집 주인, Skin-the-Goat Fitzharris)에게 beckon(손짓)했으나 주인은 전혀(눈치를 못 챌다). Bloom은 Stephen에게 어서 떠나자고 설득시킨다(assure).

그러면서 Bloom의 busy brain 속에서는 여러 Utopian plans(유토피아적 계획들)가 번뜩인다(flash). Bloom은 Education, journalism, prize titbits(현상기사), poster, concert tours(음악연주 여행), duets in Italian(이태리어 이중창) 등을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에 관심이 많다. Stephen이 father’s voice(부친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으니 그 목소리에 bank on(기대를 걸다)할만 하기 때문이다.

이때, cabby(馬夫)는 paper(신문)에서 earl Cadogan(캐도건 백작)이 cabdriver’s association dinner(마부조합 만찬회)에서 presided(사회를 봤다)했다는 기사를 읽는다. 그러자 corner에 있던 old specimen(괴짜 늙은이, Skin-the-Goat)이 sir Anthony MacDonnell(앤소니 맥도넬 경)이 chief secretary’s lodge(주무 장관의 관저)를 방

문할 것이라는 기사를 읽는다. 이와 같은 intelligence(정보)에 대해 사람들은 “why”하고 반응한다(echo).

(L 1699~) the ancient mariner(老水夫, ㉞)가 that literature(그 신문) 잠깐 squint(보자)하자고 끼어든다. 그러자 elderly party(늙은이, Skin-the-Goat)가 ‘And welcome’(그래 좋아)하고 대답한다. The sailor(선원, ㉟)는 greenish goggles(초록색 안경)를 꺼내 ears(귀)에 hook(걸치다)한다. eyes(눈)가 bad(나쁜)한 seafarer with the tartan beard(스코틀랜드 高地人의 턱수염을 기른 뱃사람, ㊱)는 literary cove(글줄이나 읽는 듯)한 태도로 자신의 시력(eyesight)과 독서의 취향(reader’ interest)에 대해 말한다. 그는 시력이 좋았는데 Sand in the Red Sea(홍해의 모래) 때문에 시력이 나빠져, 글을 읽을 때 goggle을 쓰며, 한때 *The Arabian Nights Entertainment* <<아라비안 나이트 향연>>와 *Red as a Rose is She* <<붉은 장미 같은 소녀>>같은 연애 소설(romantic novel)을 좋아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뱃사람(seafarer)은 journal(신문)을 펼쳐서 유명한 크리켓 선수(cricket player) King William, Iremonger에 관한 기사(articles) 등을 pore(세세히 읽다)한다. 그러나 선원이 신문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은 딴청을 한다(pretend to be indifferent). keeper는 boot(구두끈)를 풀고 있고(loosen), 다른 사람들은 trivial remark(잡담)를 주고받고 있다(pass).

(L 1692~) 상황을 파악한 Bloom은 foot the bill(비용을 부담하다)하겠다는 약속대로 keeper에게 coffee와 confectionery(과자) 값으로 fourpence(4펜스, 2d x 2)를 지불한다. 이 오두막(shelter)은 적혀진 가격보다 worth twice(두 배의 가치가 있는) 한 곳이다.

Bloom의 ruse(계략)가 이루어졌고, Bloom과 Stephen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company(무리들)를 남겨두고 shelter or shanty(오두막인지 술집)를 떠난다. Stephen은 기분이 좋지 않고 fag out(몹시 지쳐) 해서 door에서 잠시 발을 멈춘다.

(L 1708~) Stephen은 Bloom에게 충동적으로 “왜 밤에 table을 거꾸로 뒤집어 놓느냐?” 하고 물어본다. “Why they put tables upside down at night, I mean chairs upside down, on the tables in cafés.” (L 1709-10) 이런 즉흥적인 질문에 neverfailing(결코 실수하지 않는) Bloom은 아침에 청소하기 위해서 라고 간단하게 대답한다. “-To sweep the floor in the morning.” (L 1713)

그렇게 말하며 Bloom은 apologetic(미안해) 하면서 몸을 돌려(skip around)

Stephen의 right로 간다. 여기서 right side는 tender Achilles(예민한 아킬레스의 발꿈치)를 의미한다. Stephen은 on his pins(서 있는 것)가 힘들었으나 기분이 한결 좋다. Bloom은 Stephen에게 걸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기대라고 한다. “The only thing is to walk then you’ll feel a different man. Come. It’s not far. Lean on me.” (L 1719-20) 그는 Stephen의 right(오른팔)에 자신의 left(왼팔)를 끼고 Stephen을 lead한다. 그러나 Stephen은 a strange kind of flesh(낯선 종류의 육체, Bloom)가 approach한다고 느낄 뿐이다.

그들은 stones와 brazier(화로)가 놓여있는 sentrybox(보초막)를 지나간다. 거기에는 Gumley가 여전히 arms of Murphy(夢神의 팔)에 안겨있다. 여기서 narrator는 Parnell의 coffin of stones(돌맹이가 든 관)를 다시 언급한다. 사실 Parnell에게 들을 던져 죽게 한 것은 80명(86명)의 constituencies(지지자들) 중에서 72명 이었는데 이들은 peasant class(농민계급)로 evicted tenants(추방당한 소작인들) 이었다.

(L 1733~) 그들은 서로 arm in arm(팔짱을 끼고)한 채로 Beresford place(베레스포드 네거리)를 걸어가면서 음악에 대하여 chat(토론)하기 시작한다. Narrator는 Bloom과 Stephen의 음악적 취향에 대해 장광설적 화법으로 늘어놓는다. 먼저, Wagnerian music(바그너 음악), Mercadante(메르칸테), Meyerbeer(마이어베르), Mozart, catholic church와 protestant music 등에 대한 Bloom의 취향이 설명된다. 또한 Madam Marion Tweedy는 Rossini’s *Stabat Mater*(룻시니의 <성모는 일어섰도다>)를 불러 엄청난 sensation을 일으켜 jesuit fathers’ church(예수회 성당)의 the others(다른 연출가들)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심지어 virtuosos(예술의 거장들)가 그녀(Marion Tweedy)의 노래를 듣기위해 doors까지 throng(몰려들다)할 정도였다. 하지만 Bloom은 *Don Giovanni*(돈 지오바니), *Martha*(마르타) 같은 light opera(輕오페라)를 prefer했으며, Mendelssohn(멘델스존)과 같은 classical school(고전파)에 대해서는 surface knowledge만 갖고 있다. 이에 반해 Stephen은 old favourites(옛날의 애창곡들)를 모두 알고 있다. 애창곡 중에서 특히 Lionel’s air in *Martha*(<마르타> 속의 라이오넬의 아리아) *M’appari*(“마파리”)를 잘 불렀다. Bloom은 어제 Stephen의 아버지로부터 바로 그 아리아를 overhear 했는데 아리아를 perfection(완전무결)하게 부르는 것을 듣고 감탄했다. 이어서 Stephen은 5명의 음악가와 악기에 대해 자신의 취향을 늘어놓는다: Shakespeare’s song(셰익스피어의 가요), lutenist Dowland(루트연주자 존 다울런드), Arnold Dolmetsch(아놀드 돌

메치, 악기 제작자), Farnaby and son(파나비父子), Byrd (William) player(연주자 윌리엄 버드), Tomkins composer(작곡가 톰킨스), John Bull.

(1770~)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동안, sweeper(청소기)를 drag하는 horse가 swathe of mire(진흙길)를 brush하면서 걷는다(pace). Bloom은 그 소리에 sixtyfive guineas(65 기니)와 John Bull에 대한 이야기를 잘 포착했는지(caught) 확신하지 못한다.

By the chains(쇠사슬 울타리 곁에서) horse가 방향을 바꾸자(swerve), 언제나 sharp lookout(세심한 경계)을 하던 Bloom은 Stephen에게 steamroller(증기 롤러)를 조심하라고 jocosely(익살스럽게) 말한다(remark).

Bloom은 horse의 head(머리)를 가까이서 보게 된다. 그 horse의 가치가 65 guineas만큼도 안 되고, 단지 뼈와 살로 형성된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자, 그 수말(male horse)을 붙잡히 여긴다: “Bloom looked at the head of a horse not worth anything like sixtyfive guineas, . . . it[horse] seemed new, a different grouping of bones and even flesh ... But such a good poor brute” (L 1781-87) Bloom은 a lump of sugar(각설탕)를 갖고 있지 않아 안타까워한다(sorry). 그리고 그 horse를 우둔하고 바보 같다고 표현한다: “He was just a big nervous foolish noodly kind of a horse, without a second care in the world. (L 1789-90) Bloom의 의식이 dog에 미치자, 그는 mongrel in Barney Kiernan’s(바니 키어넨 주점의 잡종개)를 떠올리며 그런 놈을 마주치면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camel의 외모를 동정하던 Bloom은 bees, whale, alligator, rooster, tiger 등의 동물에 대한 훈련을 생각하며 꿀벌의 기술을 칭찬하기도 한다: “[n]oting beyond the art of man barring the bees.” (L 1794-95)

(1800~) 상념에서 벗어난 Bloom은 Stephen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wife도 음악에 관심이 많으니 자네와 친하게 되는 것을 the greatest of pleasure(가장 큰 기쁨)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Stephen은 blackguard type(불량배 타입)의 얼굴이 아니다. (그래서 Molly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Bloom은 Stephen이 음악적으로 아버지의 gift(천부적 재능)를 타고 났으니 aristocracy(상류사회)로 갈 수 있고 concert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Stephen은 *Youth here has End* <청춘은 이제 끝났도다>라는 곡의 variations(변주곡)에 대해 평하고(describe), 갑자기 German song(독일 민요) 한 가락을 부르기

시작한다. 이것이 Bloom을 약간 어리둥절하게 한다(boggle).

Bloom이 Stephen에게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하자 Stephen은 그렇게 한다. Bloom은 Stephen이 방금 꺼낸 그 first note(최초의 음률)에서 Bloom이 식별한 일이나, “Stephen의 천부의 음악적 재능 중에서도 ... 테너 목소리”에 크게 감탄한다. 이와 연관하여 Bloom은 이 젊은이가 Barraclough(배러클로우) 같은 authority(권위자)에게 voice production(발성법)을 지도받으면(handled) 장차 Dublin 음악계에서 출세할 것이라는 화려한 계획들을 명상한다. Stephen이 지니고 있는 degree of B.A.(문학사 학위)와 gentlemanly bearing(신사적인 태도)에, clothes(복장)만 잘 갖추었다면 뛰어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L 1838) Bloom은 Stephen을 이용하여 filthy lucre(더러운 금전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상투적인 tenor solos와 확실하게 다른 Stephen의 original music을 잘 살려주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 as it[Stephen’s musical talent] would be a decided novelty for Dublin’s musical world” (L 1849-50) 어떤 patrons(후원자)를 얻어 grand concert(대음악회)를 가질 수도 있을 거다. Stephen은 vocal career(성악적 생애)와 clash(충돌)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지(derogatory) 앓고도, 언제든지 문학적 수업을 받을(practice literature) 수도 있을 거다. Bloom은 “angels가 가지 않는 곳에 fools(바보들)가 발을 들여 놓는다”(L 1868)라는 원리에서 Stephen에게 최후의 충고를 한다. 그는 Stephen에게 우정이 싹트기 시작한(budding) practitioner(개업의) Buck Mulligan(벅 멀리건)을 멀리하도록(sever) 타이른다. 왜냐하면 Mulligan은 Stephen이 부재한 사이 그를 험담하며(disparage) 비난하기(deprecate) 때문이다.

(1874~) The horse(말)가 그 때 오만하게 꼬리를 쳐들고(halt), three smoking globes of turds(김이 무럭무럭 나는 똥 덩어리 세 개)를 천천히, 차례로 떨어뜨린다. Side by side(나란히) Bloom과 Stephen은 Gardiner street lower(하부 가디너가)를 향해 길을 건너간다(pass). Stephen은 대담하게 ballad(민요)의 마지막 소절을 노래한다. 청소차 위의 driver(마부)는 한 사람은 full(똥똥, Bloom)하고 한 사람은 lean(여윈, Stephen), to be married by Father Maher(‘마허 신부가 부부로 맺어 준’) 두 인물이 railway bridge(기차 철로)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바라본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sirens(바다의 요정), usurpers(찬탈자들)와 그 같은 종류의 historical cases(역사적 사건) 등에 대해서 tête-à-tête(환담)을 나눈다. 마부(the man)는 그들

의 *lowbacked car*(등 낮은 마차)를 배운다.

### <Discussion>

1. Shelter에서 talking(대화)이 주로 신문(journal, literature)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 형성에 신문/저널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신문/저널이 독자들에게 함축하고 있는 의미(connotation)는 무엇인가?
2. Stephen이 계속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Bloom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동물들 특히 말에 대한 Bloom과 Stephen의 관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4. Bloom이 Stephen의 음악적 talent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과 Molly를 소개시켜 주려는 행위의 상관관계는?

### <토론 및 의견>

#### <양진아>

아킬레스건이 언급된 이유는 혹시 블룸이 항상 오른쪽으로 걸어 다녀서 청소 차에 치일 뻔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 <박진훈>

차도는 오히려 왼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종일>

블룸은 오른쪽에 가깝기보다는 왼쪽과 가깝다고 봐야겠지요.

#### <김종진>

블룸이 스티븐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서 마음속으로 Utopian Plan(자기집으로 스티븐을 데려갈 것의 장점)을 생각했습니다. 몰리와 스티븐이 음악공부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 Boylan에 대한 생각과 voligo가 연관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로 journal, literature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장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매춘”을 다른 각도에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학적 “매춘” 혹은 “잡소리”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538의 내용은 모두 신문 표제의 내용들에 해당합니다.

## &lt;이종일&gt;

특히, 이 부분에서는 스티븐의 주저하는 태도와 블룸의 정착된 모습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 &lt;남기현&gt;

콤마(,)와 괄호의 차이는 실제로 한 말과 생각한 것과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lt;Justin&gt;

Walking on the right side is impolite.

## &lt;김종건&gt;

Bloom을 a strong kind of flesh of a different ma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different”는 의미하는 것인지요?

## &lt;양진이&gt;

혹시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lt;이종일&gt;

아이러니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lt;남기현&gt;

기낼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lt;김종건&gt;

블룸은 실용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스티븐은 좀 더 추상적인 측면을 드러냅니다. 즉, 두 사람의 기질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 &lt;박진훈&gt;

결국 스티븐이 블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기질적 차이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lt;이영심&gt;

이러한 기질적 차이는 스티븐의 비현실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 &lt;김종건&gt;

stone과 파넬의 연관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lt;남기현&gt;

파넬의 관이 돌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과 파넬이 돌에 맞았던 사실을 상기시

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김종건>

Don Giovanni의 주제가 배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덕선>

일종의 “ghost narration”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건>

스티븐의 말에서 나타나는 관점과 블룸의 말에서 관점상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블룸은 동물에 대해서 대단히 동정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매우 세부적인 사실주의적 항목들은 조이스의 미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백과사전적인 사실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스티븐은 개를 싫어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종일>

블룸은 동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연민을 많이 드러냅니다.

<Amanda>

여기서 등장하는 Hairpin은 작살에 대한 은유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건>

마지막 문단은 블룸과 스티븐과 교감을 보여줍니다.

<이종일>

마지막 문단은 노래가사를 그대로 삽입하여 구성했습니다.

<양진이>

1643행부터 끝까지 진행된 91회 독회는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유메이어스(Eumaeus)’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독회의 주요 사건은 아내 때문에 남몰래 속앓이만 하던 블룸이 문학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사이먼의 음악적 재능이 그대로 유전된 아들 스티븐과 함께 몰리와 보일런의 불륜 관계를 맺은 집으로 가는 것이다. 현실적인 블룸의 관점에서는 스티븐은 젊고 유능한 청년이고 주변 인물들로 인해 분명 더욱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스티븐 자체는 이상적인 사고로 그 현실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블룸은 이해타산

적이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이 청년을 어리석게 보지 않고, 학식이나 재능에 오히려 존경하고 걱정하는 모습에서 부성애적 감성을 넘어 동료로써의 남성적 인류애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스티븐의 관점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어 블룸과 같이 나이 많은 남성과 그 남성의 사고로 만들어진 시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블룸의 충고도 듣지 않고 블룸과의 대화에서도 서로 반대 입장을 취한 적도 있다. 이런 사실에도 함께 블룸의 집으로 향하기로 한 이유에는 글로 표현되지 않았던 핵심적 사건은 생략되어진 것으로 본다. 그 사건은 블룸이 스티븐에게 자신의 아내가 친구인 보일런이라는 자와의 부정했을지도 모를 일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이다.

앞뒤 정황적으로 볼 때 블룸에 대해 달라진 스티븐의 태도는 블룸은 아내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블룸의 문제는 스티븐에게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 주어 멀리건과 같은 친구에 대해 진심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블룸과 같은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심적으로 회복되었으리라 본다. 반면에 블룸은 스티븐을 보면서, 현재 아내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에 비해 고통이 작으며, 소심한 의지적인 최면술로 잊으려 노력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세 사람의 미래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블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마주대할 용기가 부족하여 스티븐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도 동의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티븐을 아들삼아 집에 데려가는 또 다른 이유는 아들을 잃기 전 행복했던 시절도 되돌아가려는 의지적 노력인 가족관계의 회복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3월 독회기록에 제시했던 오디세우스가 에우마이우스를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과거의 삶을 되찾는 일을 하고 있는 내용과 상치(Homeric Parallel)되는 율리시스 내에서 찾은 부제목의 역할이라고 본다.

## 제 92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성균관 대학교 802호

일시: 2011. 12. 17. (토) 오후 2:00-5:30

독회진행자: 강서정

범위: *Ulysses*, Chapter 17 Ithaca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홍덕선, 민태운, 이종일, 전은경, 남기현, 윤희환, 김경숙, 김상욱, 길혜령, 손승희, 김철수, 이영심, 양진이(세종대 대학원생), 김은영, 조윤정, 정혜선, 김태은(이상 성균관대 대학원생들)

### <발제>

#### \*“밤의 귀로”(Ithaca) (김종건 교수님의 『율리시스 연구』발췌, 요약)

본 장에서 스티븐과 블룸이 취하는 여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것은 역마차의 오두막에서 나와 Eccles가 7번지의 블룸의 집까지 나아가는 곧고 단순한 행로이다. 블룸은 출입문 열쇠를 지니고 오지 않아 집의 난간 울타리를 기어올라 지하실의 부엌까지 몸을 떨어뜨려 집안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여로는 스티븐이 블룸가에서 돌아가는 귀로이다. 그는 블룸과 부엌에서 코코아를 마시고 환담을 나눈 뒤 아마도 Eccles가를 돌아 St. Peter's Terrace 7번지의 부친의 집으로 향했을 것이다.

때는 새벽 2시. 이제 막 술에서 깨어난 스티븐은 Eccles가 7번지의 블룸가까지 한 잔의 코코아를 마시기 위해 초대를 받아들인다. 그들은 오두막에서 걸어 나와 도중에 갖가지 일을 토론한다. 블룸은 집의 열쇠를 잊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지하실의 식당까지 울타리를 넘어 뛰어내린 다음 스티븐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중문에 나타난다. 그는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주전자에 물을 끓여 코코아를 타서 스티븐과 함께 마신다. 그들은 헤브라이어와 고대 아일랜드어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만, 둘 다 자신들의 언어에 능하지 않다. 중간에서 스티븐은 그리스도교를 살해하는 유대인의 의식적 살해에 관한 민요를 부르나, 블룸의 기분은 과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손님을 밤사이 머물도록 초청하지만 스티븐은 이를 거절한다. 그들은 정원으로 나가 하늘의 별들과 물리의 불 켜진 이층 창문을 바라보며 소변을 본다. 이 때 근처 조지 교회의 종소리가 들린다. 스티븐은 밤 속으로 걸어가며 마침내 소실에서 영영 자취를 감춘다. 블룸은 아래층에서 옷을 벗는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집의 내부가 자세히 서술된다. 블룸의 하루 경비 지출이 마지막 한

뿐까지 계산되며, 서재의 책들이 목록에 기재된다. 그리고 그의 서랍들이 불륨의 호색적 개인적 비밀을 드러낸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거금을 벌겠다는 생각에 잠기나 이내 그것을 포기한다. 그는 보일런이 집에 왔었던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다. 그러나 그와 아내 사이의 간음에 대한 그의 반응은 오히려 철학적이다. 그는 이층 침실로 가서 그가 당일 겪었던 일을 아내에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태아의 자세로 몸을 구부리고 잠에 빠진다.

호머(Homer)의 작품에서 거지로 분장한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자신의 궁전에 그 자취를 드러낸다. 구혼자들은 누가 오디세우스의 활을 쓸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자 거지가 이를 쉽사리 해낸다. 그리고 구혼자들을 이내 처단하기 시작한다. 미리 준비를 갖춘 오디세우스 부왕과 텔레마커스 왕자는 무기고에서 무기를 취하여 두 구혼자들 Antinous와 Eurymachus를 제외한 다른 무리들을 살해한다. 그런 다음 오디세우스는 향을 피워 궁전을 청소한다. 살상은 너무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Penelope 왕비는 이를 모른 채 이층에서 잠 들고 있다. 남편이 여전히 변장한 채 그녀에게 신분을 알리자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여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궁전의 비밀들 중의 하나인 침대의 모양에 대하여 말하자, 그녀는 그를 남편으로 알아채고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의 의식을 올린다.

### <김종진 선생님의 논점>

1. 불륨이 아내의 구혼자들의 정복을 위해 사용하는 활은 이성(reason) 혹은 과학 및 논리의 종교이다: 아내의 불륜에 대한 불륨의 태도
2. 그리스도교와의 대응: 아담이 낙원에서 떨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실에 떨어지는 불륨. 행복한 몰락과 부활(몰락이 없었다면 구원이 축복도 없었을 것이기에)
3. 단테의 『신곡』과 본 장: 이타카 장은 연옥에 해당한다.
4. Arnold Goldman의 조이스 패러독스(Joyce Paradox): 사실주의와 상징주의의 양극화 현상이며, 조이스가 이러한 양극화의 이상적 작가로 택한 것이 Blake와 Defoe.
  - Defoe의 백과사전적이며, 누적적, 단순한 세목화
  - Blake에 대한 불륨의 연설: 비전의 예술가와의 깊은 유사성을 드러낸다. 예술

가는 풀잎 속에 우주를 간파할 수 있으며, 또한 그는 상징적 대응을 통하여 무한히 작은 것으로부터 무한히 큰 것으로, 인간의 꺾방울에서 별들의 우주에로 날 수 있는 인간의 백혈구보다 작은 각 순간을 6천년의 기간과 동일시할 수 있다.

5. 블룸이 보여주는 마음의 평정

6. 비개성적 교리문답(catechism, impersonal): Richard Mangnall의 『역사적 및 다양한 질문(Historical and Miscellaneous Questions』의 영향. “나는 이타카장을 수학적 교리문답식의 형태로 쓰고 있소. 모든 사건들은 그것들의 우주적, 물리적, 심리적 등가를 속으로 녹아들고 있소. 블룸은 울타리를 넘고, 수도꼭지에서 물을 따르며, 정원에서 소변을 보며,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며, 그리하여 독자는 모든 것을 가장 대담하고 냉담한 방법으로 그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스티븐과 블룸은 그들이 바라보는 별들처럼 천체들, 방랑자가 되는 것이오.” (Frank Budgen에게 보낸 조이스의 편지 중)

- 질문은 단순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허세를 부리는 권위의 목소리는 넘치는 정보와 오보로 응답한다.

p. 544. 이타카 장의 서막이 열리면서 스티븐과 블룸이 따르는 정확한 행로와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의 주제들이 기록된다. 블룸의 눈에는 스티븐과 블룸이 다 같이 음악에 대한 공동의 열성을 비롯하여 종교적, 정치적 정통성에 대해 공동으로 반항하고, 성에 있어 공동의 관심을 띠고 있다고 여겨진다.

line 20: 비슷한 공통요소 (cf. 스티븐이 블룸의 사회, 정치적 철학에 있어 별반 흥미가 없으며 블룸은 스티븐의 예술적 신조, 해박한 지적 이론에 대해 별반 이해하지 못한다.)

p. 545. 다시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밖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차이를 토로한다. ex> 스티븐의 줄도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

구름과 관련하여: “보시라, 저기 남자의 손을 닦은, 바다에서 솟아난 한 조각 작은 구름을.” (<열왕기상>18장 44절)

p. 546. 블룸과 스티븐이 Eccles가 7번지에 도착하자, 블룸은 그의 집 바깥문

열쇠를 바지 호주머니에 두고 나왔음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이 두 열쇠없는 자들이 취할 대안은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문을 노크하느냐 않느냐이다. 그들은 사실상 열쇠 없이 그들의 가정, 조국, 전통, 교회 및 신앙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이다. 성경 말씀에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Knock and it shall be opened unto you)란 구절이 있거니와 그러나 아무도 바위 위에 건립된 신비의 신부인 몰리의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p. 547.** 스티븐은 거의 울타리에 기대 서 있다. 그리고 부엌의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홀의 문 너머로 한 가닥 불빛을 본다. 이어 불륨이 문을 열고 스티븐을 현관으로 하여 아래층 부엌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불륨은 난로의 재반이들에 무릎을 꿇고 종이의 뽀족한 세 모서리에 거의 타버린 한 개비의 황린 성냥으로 불을 당겨 난로에 불을 지핀다. 여기 불륨의 불을 지피는 행위는 스티븐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똑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상기시키는데, 이는 마치 거리의 등불이 일향성 식물의 앞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앞서의 이야기가 불륨의 과거 경험을 되새기는 장면들과 평행을 이룬다.

**p. 548.** 그러자 스티븐의 시선이 맞은 편 ‘한 줄로 늘어선 코일형 스프링이 달린 다섯 개의 초인종 속에, 그리고 벽감을 가로질러 매달려 있는 약간의 빨래 감들에 머문다. 이어 불륨은 냄비를 렌지의 왼쪽 시렁에도 옮겨 놓고 쇠술을 싱크대에 가져가 물을 따른다. 여기서 우리는 Wicklow 의 Richmond 저수지에서 더블린 시까지 수도관을 통하여 물이 흐르는 과정과 시의 수도의 자세한 설비와 그에 관한 세목들을 읽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bird's eye view)나 하느님의 견해(God's eye view)를 통해 서술되고 있는 듯 느낀다.

**p. 549.** 공수병(hydrophobia) 환자인 스티븐과는 대조적으로 물을 사랑하는자인 불륨은 물의 갖가지 속성을 음미하며 감탄한다. 물의 보편성, 일정 불변성, 변이성, 부동성, 패권성, 침식성, 맹위성, 증류성, 침투성, 단순성, 순응성, 잠재성, 편재성 등 그의 속성 및 용도 등이 과학적 카탈로그의 형식으로, 그의 풍부함이 백과사전식으로, 그의 영역이 우주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불륨 자신의 기질과 서로 상통하기도 한다.

p. 550. 블룸은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은 다음 싱크대로 되돌아와 그가 아침에 산 레몬 향기의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다. 스티븐은 블룸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물에 손씻기를 거절한다. 그가 물과의 접촉을 혐오하는 이유인즉, 외형적으로 자신이 공수병 환자임은 물론, 사고나 언어의 유동성에 대한 자신의 불신과 연관되어 있다.

-블룸과 스티븐의 차이로 부각되는 물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 <토론>

#### <전은경>

서술자(narrator)가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 <양진이>

몰리와 보일런과의 블룸이 진짜로 일어난 일인가의 여부에 있어서, 당사자를 제외하고 이 사실을 아는 존재는 사람이 아닌 바로 그들의 집인 “ithaca”라고 할 수 있어서 혹시 이 집을 서술자로 보면 안될까요? 즉, 사물인 집과 독자와의 대화가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은경>

그러나, 과학적인 해박한 지식으로 판단해 보는데, 사물이 서술자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김길중>

질문과 답이 있으므로 서술자를 상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리차드 라이트의 작품을 보면 문답형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분신의 역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질문자와 답하는 자가 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이종일>

그렇습니다. 작가의 분신이거나 혹은 작가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남기현>

이 에피소드는 대표적으로 교리문답의 형식과 백과사전의 형식을 활용하여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길중>**

종교의 교리문답 형식에 대한 패러디이자 과학적 담론에 대한 패러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

너무나 분명하게 똑떨어지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 상당히 “반조이스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영심>**

표면적으로는 김경숙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똑떨어지는 교리문답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조이스적인” 측면을 또한 보여줍니다. 즉, 교리문답의 형식을 가져와서 그것이 가지는 특징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덕선>**

여기서 “emergency”는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김길중>**

“모래통”

**<길혜령>**

“긴급 쓰레기통”

**<이영심>**

이 에피소드에서는 블룸과 스티븐이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블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에피소드 이전에 그는 다른 어떤 인물과도 제대로 된 소통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종일>**

그렇지만, 둘 사이에 제대로 된 소통이 된 것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중건>**

한편으로 이 에피소드가 어려운 이유는 비문학적인 용어가 많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특히 천문학에 관련된 전문 용어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교리문답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점도 텍스트 읽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상징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인 요소나, 호머의 인용도 많이 삽입되어 있어서 결코 만만치

않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길중>

여기에 나온 특정 연도들은 두 사람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과 유사한 주제들에 관해서 토론한 시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강서정>

토론 주제를 약간 전환해서 블룸과 스티븐의 interrelation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 죽음에 대해서 강조점을 부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주세요.

#### <홍덕선>

두 인물의 “고립”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에피소드로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길중>

“gaslight”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스티븐과 블룸이 하나로 합체되는 순간이 나와 있습니다.

#### <김종건>

지형과 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요 인물이 가는 방향을 주로 묘사하는 것도 있고, 또는 지리나 지형을 의인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길해령>

어느 비평가에 따르면 블룸에 17장에서 죽은 것으로 분석한다.

#### <김종건>

“물”(p549)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열거에 대한 부분은 Defoe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상징주의는 Blake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 <이영심>

물의 속성과 교리문답의 특징은 강력한 대조를 보여주는데, 즉 멈추지 않고 유동하며 형태를 고정할 수 없는 물과 질문과 대답의 형식에 모든 것들을 고정화시키려는 교리문답의 형식 자체가 대조를 보여줍니다.

#### <남기현>

물의 속성 중에 교황에게만 부여된 “무결점성”(infallibility)을 부여한 것은 교황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종교 비판적인 부분

을 드러냅니다.

### <이종일>

스티븐과 블룸이 공통적으로 멀리건과 보일런과 모두 공통적으로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것을 찬탈당한 입장이다. 즉 이들은 “keyless”의 존재입니다.

### <남기헌>

그런데, 지금까지의 해석과는 다르게 스티븐과 멀리건이 살고 있는 마텔로 탑의 집세는 스티븐이 아닌 멀리건이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멀리건의 모델인 고가티가 조이스의 집세를 내 준 것을 고려한다면(휴케너) 스티븐이 아닌 멀리건이 집세를 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전은경>

고가티에 대해서 조이스가 상당히 예민하게 구는 구석이 있습니다.

### <김길중>

“물”을 두려워 한 스티븐의 태도는 아직 삶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민태운>

스티븐의 경험부족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직 현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없어도 드러납니다.

### <남기헌>

Liffey 강을 “삶” 그 자체로 볼 때, 이와 대조되는 스티븐의 미성숙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는 흐르는 물이 아닌 고여 있는 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드러납니다.

### <강서정>

두 인물의 삶에 대한 태도도 대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블룸의 포용적인 태도와 스티븐의 경직성이 그것입니다.

### <양진이>

2011년 올해의 마지막 독회 장소는 세종대학교에서 성균관대학교로 옮겨지듯, 블룸의 마음을 표현했던 16장 Eumaeus에서 교리문답식 17장 Ithaca로 강서정 선생님께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김종건 교수님께서 친필 싸인이 있는 ‘노라’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증정행사가 있었으며, 직접 번

역하신 한 권의 책에 대해 대부분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제임스 조이스 학술지인 *James Joyce Quarterly*에 김종건 교수님께서 글을 실으셔서 한국의 조이스학자로 빛내셨는데, 올해에는 영남대학교 길혜령 교수님의 글이 게재되어 많은 유명한 외국 학자들 틈에서 영예롭게도 그 빛을 다시 받혀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Kil, Hye Ryoung, “Soap Advertisements and Ulysses: The Brooke’s Monkey Brand Ad and Capital Couple”(James Joyce Quarterly 47.3: 417-426)

17장에 관한 첫 발제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전은경 교수님의 질문은 “내러이터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불륨의 복잡한 심경으로 길게 느껴진 짧은 여정 16장에서 17장의 질문과 대답식의 명확한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교리문답식 구조 자체로 된 질문과 대답이 어긋났던 이유를 카톨릭 교리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능한 영적인 전지적 존재가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전반적인 동의를 얻었지만 나의 의견은 달랐다. 뉴욕의 문예잡지 『리틀리뷰』(Little Review)에 연재되던 중 게재 금지를 당했던 『율리시스』(Ulysses)의 1장부터 16장까지 많은 독자의 알듯 말듯 한 직감 속에 궁금증을 일으키는 유일한 질문은 불륨의 아내 몰리가 보일런과 부정행위를 했을까하는 의문점이다. 소설 속에서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을 시간은 지났고 몰리와 보일런 외에 그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알고 있는 증인 및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늘에 계신 주님만이 알 것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는 두 사람의 밀회에 대한 답은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속 주인공인 명탐정 셉록 홈즈는 알아 낼 수도 없을 일이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몰리는 남편 불륨이 자신의 애정행각을 알기를 원하는 태도로 가구의 배치를 원래대로 옮겨 놓지 않았는 근거를 미루어, 과감히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불륨의 집” 자체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오디세이아』의 상징화된 이름인 이타카가 17장의 이름이 아닐까 한다.

17장 시작은 질문으로 독자의 시각을 고정시킨다. 질문자체를 인식하고 읽는 독자는 그 이상의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생각하지 않고 한정된다. 이러한 독자를 고정과 한정을 하게 하는 질문을 만든 작가는 질문의 대상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을까? 가끔 소설 속에 개입된 많은 생각과 사물의 묘사로 독자들은 사건의 그 상황의 중요성을 잇는 경우가 있다. 어떤 가정의 주인공인 한 부부 중 일부가 다른 인간과의 육체적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우리 사회

에서도 큰 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십계명 중에 하나로 로마 카톨릭과 로터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의 6번째와 유대교 동방정교, 루터교를 제외한 개신교의 십계명에는 7번째에 속하는 간음의 금지이다. 또한 1920년대 당시의 금서로 낙인찍힐 만큼의 빅 이슈였음에 틀림없다. 집으로 돌아간 블룸에게 “진짜 너희 부인 다른 남자와 무슨 일 있었어?”라고 물어볼 사람은 누구겠는가? 에 초점을 맞추면, 작가가 만든 질문으로 가장 고정된 영향을 받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아닐까 한다. 그 독자의 질문에 정확한 근거로 답할 수 있는 대상이 블룸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inexistence”와 “nonexistence”의 구별이 필요하다. inexistence는 원래 존재하던 것이 사라진 것이고, nonexistence는 원래 존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존재라는 그 사실이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존재란 존재에 대한 타자에 의한 인식이 아닐까 한다. 물체와 생물의 차이도 타자의 인식된 차이에 있는 것이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경험에 대한 설명이 타자가 전혀 모르는 것이라면 존재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원래 존재했다는 것과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의 차이의 기준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인지한 적이 있었던 물체의 사라진다는 것은 inexistence라는 것은 쉽게 이해되긴 하지만 인지자가 없다면 그 자리에 그 물체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물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 본래로의 회귀를 갈망할지도 모른다. nonexistence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설명은 존재물 자체를 보고난 후에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존재물 자체는 어떤 기억도 하지 못한 채일 것이다. 한 인간과 인간이 대화를 할 때 서로의 존재로 인식되는 나는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결성을 지닐 수 있을 때이다. 에피파니에 대한 개념은 『스티븐 히로』(Stephen Hero)에서 처음으로 설명되고 있다. 주인공 스티븐이 어느 날 길을 가다 이피파니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사소한 사건에 의한 것이었다. 두 남녀의 간음행위에 대해 추궁한다면 보일런은 자신은 곧 죽어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며 기억에서 스스로 지워버릴 지도 모른다. 몰리는 사실을 실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로 반성이라는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물인 블룸의 집은 과감히 사실을 표현하고 있지만 말이라는 체계로는 할 수가 없다. 이는 신과 같은 존재로서의 사

물인 집을 설명할 수 있다. 물론 보았지만 인간의 대화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글자를 보면서 의미를 생각해낸다. 그 의미라는 것은 존재로도 비존재로도 설명하지 못하지만 타자와 같은 결론을 가진다면 진리가 될 수 있다. 블룸의 집의 가구 배치는 블룸의 직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누구에게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가구배치를 표현한 집은 익숙한 존재자인 블룸과 설득당한 독자에게는 물리의 일과가 일상적인 하루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인간과의 대화로는 아내의 간음에 대한 증거를 알아 낼 수 없지만, 집과의 대화로는 아내의 불륜적 행위의 증거를 말할 수 있다.

“물”(164-228)에 대한 기원에 대해 전은경 교수님께서 용암으로 된 지구에 비가 내려 지구가 생성되었다는 점은 흥미로웠다. 물은 인간이 하나의 정자나 난자로 분리되어 있을 때부터 함께 했던 것으로 그것의 존재감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존재하게 되면 그 때 인간은 물의 소중함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그 물질을 “물”이라고 명명하게 된다. 그것을 존재로 받아들여 함께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이 없다면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 사라지므로 인간의 일부인 “나”라는 존재조차 사라지는 형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명체가 물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좀 힘들다. 이견 인간의 눈을 통한 생명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타자로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물체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다. 그 근거로 장자의 나비에 대한 설명처럼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타자의 인식에 의해 존재하지만 잠자는 동안의 연결되는 다른 영적으로 소통했던 꿈이라는 우리의 의식에 관해서는 비존재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것 같다.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고, 아니라고 주장한 학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서양문학과 함께 동양철학을 연구하시는 김철수 교수님께서도 물에 대한 예찬이 있다고 하셨다. 전은경 교수님께서도 물에 대해서는 조이스의 대작 『피네건스 경야』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바다로 가서는 노파의 모습에 의인화되기도 한다고 하셨다. 남기현 교수님께서서는 Liffey강 자체가 “life”라는 뜻이며, 물에 대한 설명은 당시 유행하던 백과사전적 서술 방식과 유사하다고 했으며, 물에 예찬이라는 점에 대해 반론으로 마지막 두 줄을 지적하셨다. 흐르고 변화된 물의 모습과 대비되는 고인 물의 대비되는 모습이 블룸과 스티븐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김길중 교수님의

의견에 발제자도 동의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 “gnomon”(평행사변형의 한 각을 포함하는 그 닳은꼴을 떼어낸 나머지 부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큰 보편적 질서 속에 제거된 조그마한 같은 꼴이 있지만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작은 닳은꼴을 갖다 붙이며 사실을 왜곡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